

현장연구보고서

외국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고교학점제의
운영개선 방안

2021년 2월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진로진학상담전공
전 영 은

전영은의 석사과정 현장연구로 제출함

2021년 2월

지도교수 김 성 현 (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진로진학상담전공
전 영 은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3
제1절 고교학점제의 도입	3
1.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	3
2. 고교학점제의 기본개념과 운영체계	4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모형	5
제2절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	12
1.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12
가. 7차 교육과정의 특징	12
나. 7차 교육과정의 문제	14
2.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15
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16
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	17
3.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배경과 주요사항	18
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18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9
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편성·운영	21
(1)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공통사항	21
(2) 단위 배당 기준	22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공통사항)	25

라.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특징 요약	26
4. 선택형 교육과정과 학점제 배경	27
제3장 연구의 방법	29
제1절 연구 대상	29
제2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9
제4장 연구결과	30
제1절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30
1. 해외 사례 분석	30
가. 핀란드	31
나. 캐나다	33
다. 미국	34
나. 남호주	36
2. 국내 연구논문 분석	38
제2절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 결과	42
1. 학생들의 과목선택 및 교원수급	45
2. 평가 및 이수기준	47
3. 대학입시와의 연계성	48
4. 기타 논의사항	49
제3절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	49
제5장 결론 및 제언	53
참고문헌	56
부 록	58

표 목 차

< 표 1 > 학점제 운영 모형	7
< 표 2 > 개방형 선택 모형	9
< 표 3 > 완전 개방형 모형(학년제-학년단위 선택모형)	10
< 표 4 > 부분 개방형 모형: 학년제-필수 과목 지정 학년 단위 선택 모형	11
< 표 5 >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단위배당 편제	13
< 표 6 >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최초고시)	16
< 표 7 > 2013 수시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	18
< 표 8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역량	20
< 표 9 > 일반고(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22
< 표 10 >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	24
< 표 11 > 교육과정별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침 내용	27
< 표 12 >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해외 사례분석 결과	31
< 표 13 > 고교학점제 관련 국내연구 분석 결과	39
< 표 14 >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틀	42
< 표 15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분석 결과	43

그 립 목 차

[그림 1] 학점제 도입 로드맵	4
[그림 2]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체계(최종 완성 모형)	5
[그림 3] 인문사회계열 위계형 수학교과 트랙(예시)	7
[그림 4] 선택형 교과 트랙(예시)	8
[그림 5]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절차	4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변동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알맞은 인재상은 복합 문제 해결능력이나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21세기형 인재의 요건으로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류태호, 2017).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개성과 장점을 지닌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만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외의 시간은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요구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권을 반영하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권을 반영하는 교육시스템의 변화로 나타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난 2017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이다(2017.11.27, 교육부).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 과정을 통해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운영제도를 말한다(김정빈, 김수영, 함영기, 2017). 다시 말해 학년제를 바탕으로 다수의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기존의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입목적을 정

확히 규명하고 관련된 개념 정의와 대상을 규정한 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평가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홍후조, 2018).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 대한 개괄적이고 분명한 안내, 교과 내 과목간의 이수 순서에 관한 안내, 과목이수규정에서 과목별 성취기준을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통신강좌, 타교수강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우회로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광우(2018)는 고등학교 교사 1,608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능 및 대입전형자료 등에 관한 온라인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여러 선결요건을 제안했다. 학생 개인별 시간표 구성의 유연성 확보, 선택과목 수강 방식의 다원화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유의미한 선택을 위해 고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수업과 평가의 연계, 교과학습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한 학교의 책무성, 선택교육과정과 대학입시와의 연계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천송, 홍수진(2018)은 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교과 다양화와 특성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위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편성·운영될 예정으로 교사의 학생평가 재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고교학점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제도적 보완점에 있는지를 탐구했다는 점과,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고교학점제를 먼저 실시한 해외의 사례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연구한 문헌을 바탕으로 해외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의 연구 보고서들을 분석한 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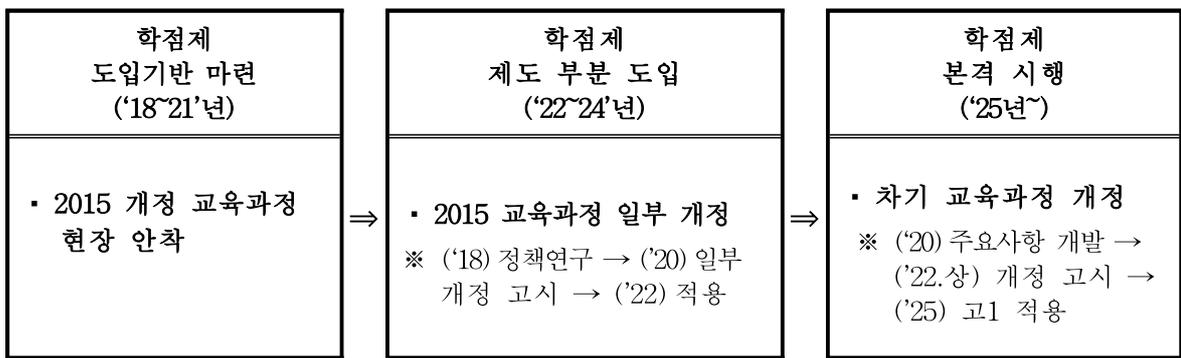
제1절 고교학점제 도입

1.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

고교학점제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주장하면서 이슈화되었다. 고교학점제는 이전 시기부터 학생선택권의 확대와 함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현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에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2017.11.27.)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전국 30개교에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로 보았다.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기체로서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수 학습·평가개선

등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도모하는데 학점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교 교육의 혁신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점제 도입 로드맵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학점제 도입 로드맵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8.8.17.)

2. 고교학점제의 기본개념과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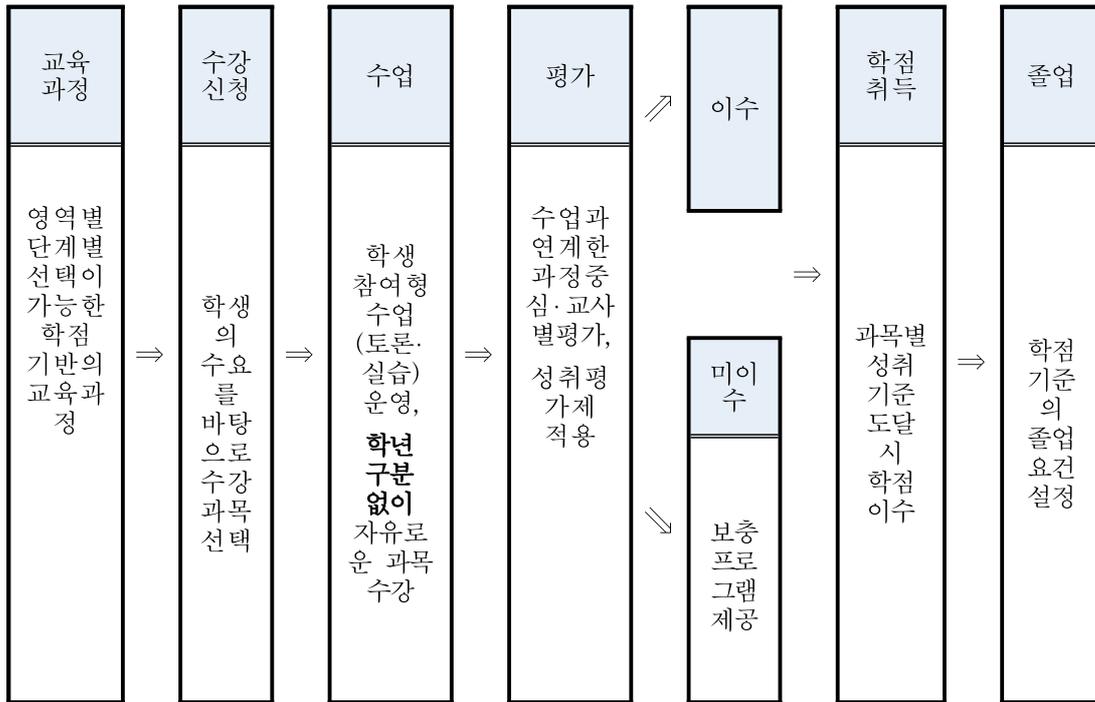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과별로 이수 성취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교과별 학점이 누적되도록 하여 누적학점이 설정한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학점제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6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8조에 의한 것으로 현행법으로도 학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학점제 운영이 가능하다. 학점제의 적용대상으로는 자율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교과에 학년 간 교차 선택이 가능한 과목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학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하고, 교과별로 정해진 이수 성취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졸업이 현행처럼 수업일수 충족이 아닌 졸업 요건에 맞는 최저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점제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준비한 학점제형 제도적 요건을 설정한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최종 완성 모형)



- ▶ **교사** : 1인의 교원이 전공 교과군 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지도, 체계적 교원 수요 예측·수급으로 학생의 과목개설 수요에 따라 탄력적 교원 배치
- ▶ **시설** : 개설 과목 확대, 학생 참여형 수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교실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홈베이스·자율학습 공간 등 확보

출처: 교육부(2017a: 3)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모형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학점제 도입 방안을 연구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학점제 운영(구자익 외, 2011)의 기본 방향 및 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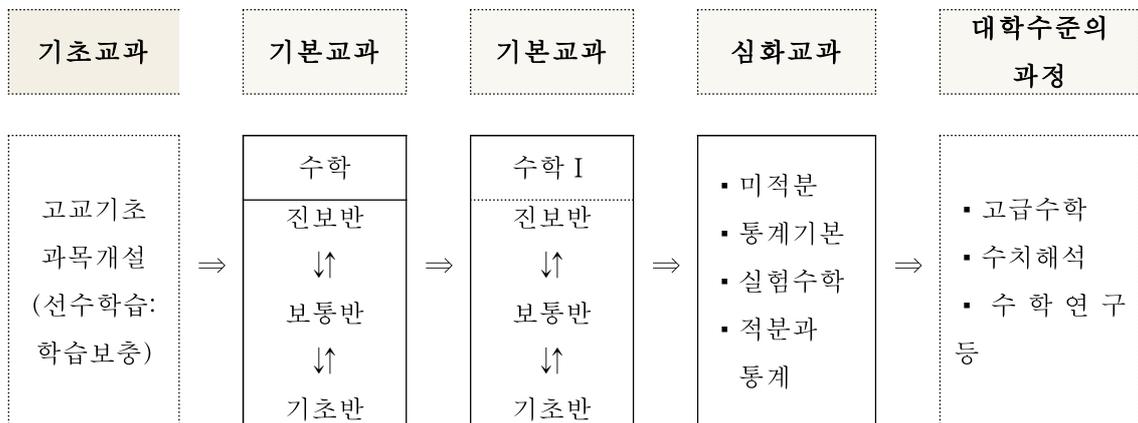
- 특정 학년에 고정하지 않고 영역별 단계와 영역 내 내용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업의 성취 수준에 따른 유급, 진급, 속진을 동시에 적용한다.
- 단계설정을 위한 기본 전제로 성취수준 평가를 통해 상, 중, 하(예시)의 반 편성을 할 수 있다.
- 단계별 영역 내에 학습내용 수준을 달리하는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여 3년 과정의 학습내용을 이수하도록 한다(수준별 반 편성에 따라 학습수준과 학습량이 다르므로 편성된 반에 따라 학습 기간이 달라짐). 단, 일정 성취수준 평가를 통해 통과 시 상위 단계(조기 진급)로 이동하되 성취기준 미달자는 하위 단계로 이동하도록 한다.
-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상, 중, 하급반의 트랙 이동은 가능하되, 학습 위계와 상급학교 진학을 고려하여 설정된 영역간 단계 이동은 유지되어야 한다.
- 동일단계 영역 내에서 성취수준에 따라 이수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년개념이 없는 무학년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다.
- 성취수준 상급반은 속진에 의해 이수시기가 단축되지만 하급반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보충학습 또는 유급제 도입을 고려한다.
- 교사의 배치는 영역별 배정보다는 수준별로 편성된 반 위주로 배치되어 3년간의 과정을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진보반 교사, 보통반 교사, 기초반 교사로 배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역별 배치가 이루어지면 속진에 의해 진급하는 학생의 학습내용과 기존반 수업진도와의 불일치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 기존 학년별 교과서에서 제시한 영역 수준을 벗어나 영역별 단계 위주로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교과서 발간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표 1> 학점제 운영 모형

구분 유형	계열운영 여부	적용범위	적용가능학교	진제조건
위계형	계열 운영	위계 교과 (수학, 영어)	자율학교 및 일반계 학 교 부분도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제 도입 • 기초과목 개설 • 대학수준의 과정 운영
선택형		영역교과 (탐구교과, 예체능교과)		
혼합형		위계교과+영역교과	교과교실제 학교 교원 및 시설 충족학교	
개방형	무계열	계열 및 과목 자율선택	학교철학이 분명한 일 부 자율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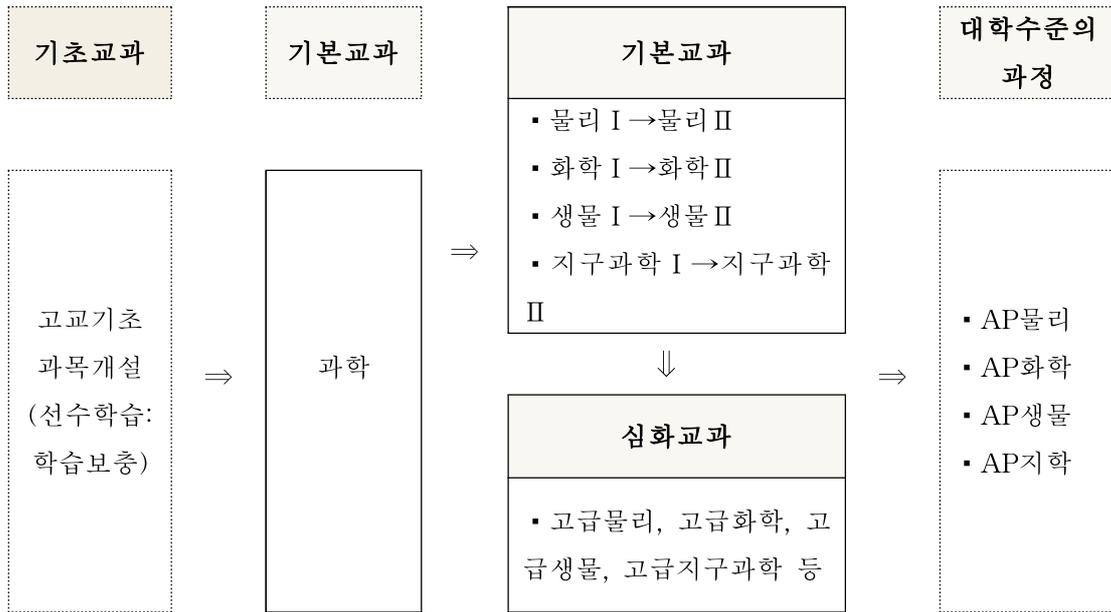
□ 위계형(수학, 영어교과) - 위계가 뚜렷한 수학, 영어 교과의 경우, 단계를 설정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의 속도와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그림 3] 인문사회계열 위계형 수학교과 트랙(예시)



□ 선택형(사회, 예·체능, 제2외국어교과) - 학생의 선택형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제이다.

[그림 4] 선택형 교과 트랙(예시)



□ 혼합형 - 교과 혼합형 적용모형은 계열, 교과 위계, 교과 선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계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교과의 위계성과 교과 선택권을 동시에 부여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제이다. 이 모형은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상황에 적합하다.

□ 개방형 - 학습자의 계열 결정권을 부여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 수준, 흥미, 진로 결정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계열을 결정하는 개방형 운영체제이다. 학습자의 자율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며, 학년, 계열, 교과 위계와 관계없이 학습자의 능력, 수준, 흥미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학습 운영체제를 의미한다.

구자익 외(2011)의 학점제 운영 모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계열이 강한 형태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계열을 넘어서 과목 선택이 가능한 학점제 모형은 전체적으로 개방형을 기본 전제로 교육과정 편성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그러나 학년을 개방하며 교과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혜정 외(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편성 방안”으로 다음의 개방형 선택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표 2> 개방형 선택 모형

선택제		선택단위	학년 단위 선택	학기 단위 선택
완전 개방형		1. 무학년제	A-1	A-2
		2. 학년제	B-1	B-2
부분 개방형	필수 과목 지정	3. 무학년제	C-1	C-2
		4. 학년제	D-1	D-2
	교과 영역 내 선택	5. 무학년제	E-1	E-2
		6. 학년제	F-1	F-2

개방형 선택 모형은 완전 개방형과 부분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완전 개방형은 교과 간 칸막이 없이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무학년 선택제와 학년 선택제로 구분되고, 무학년 선택제와 학년 선택제 안에서 학년 단위 선택과 학기 단위 선택으로 구분된다. 부분 개방형은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지정하거나 교과 영역 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역시 4개 형태로 구분된다. 결국 위 <표 2>에서와 같이 총 12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 체제 유지를 고려할 때(2022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가정) 완전 개방형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완전 개방형 모형의 학년제 - 학년 단위 선택 모형은 1학년은 공통 과목 등 학교 지정으로 운영하고 2-3학년에서는 2년 동안 학년별로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받게 한다. 학년별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54단위, 9개 과목을 선택한다. 과목 선택 시 진로 선택 과목이 3개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부분 개방형 모형의 학년제 - 필수 과목 지정 학년 단위 선택 모형은 학교에서 몇 개의 과목을 지정하고 2학년과 3학년 각 학년 학생들에게 학년 단위로 선택권을 개방하는 것이다. 1학년은 공통과목 등 학교 지정으로 운영하고 2학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교과 필수이수단위 충족을 위하여 학교에서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표 3> 완전 개방형 모형(학년제-학년 단위 선택 모형)

학기 영역	1-1	1-2	2-1	2-2	3-1	3-2	필수이수 단위
기초	국어(4) 수학(4) 영어(4)	국어(4) 수학(4) 영어(4)	국어 교과목(6) 수학 교과목(6) 영어 교과목(6) 사회 교과목(6) 과학 교과목(6)	국어, 수학, 영어 각10 국·수·영 84 이내			
	한국사(3)	한국사(3)	체육·예술 교과목(6)	체육·예술 교과목(6)	체육·예술 교과목(6)	체육·예술 교과목(6)	한국사 6
탐구	통합사회(4)	통합사회(4)	생활·교양 교과목(6)	생활·교양 교과목(6)	생활·교양 교과목(6)	생활·교양 교과목(6)	사회10 과학12
	통합과학(4) 과학탐구실 험(1)	통합과학(4) 과학탐구실 험(1)	중 [택9]	중 [택9]	중 [택9]	중 [택9]	
체육· 예술	체육(1) 예술(3)	체육(1) 예술(3)	체육(4)		체육(4)		체육10 (매 학기 이수) 예술10
생활· 교양	생활·교양(2)	생활·교양(2)	생활·교양(2)		생활·교양(2)		생활·교양 16
이수 단위	30	30	30	30	30	30	180

<표 4> 부분 개방형 모형: 학년제 - 필수 과목 지정 학년 단위 선택 모형

학기 영역	1-1	1-2	2-1	2-2	3-1	3-2	필수이수 단위
기초	국어(8) 수학(8) 영어(8)		국어교과목 지정(5) 수학교과목 지정(5) 영어교과목 지정(6)	국어 교과목(5) 수학 교과목(5) 영어 교과목(6) 중 [택3]	국어 교과목(6) 수학 교과목(6) 영어 교과목(6) 사회 교과목(6) 과학 교과목(6) 체육·예술 교과목(6) 중 [택4]		국어, 수학, 영어 각10 국·수·영 84이내
			기초 영역 교과목(4)[택1]				
	한국사(6)						한국사6
탐구	통합사회(8)	통합과학(8) 과학탐구 실험(2)	과학 교과목 지정(4)		사회 교과목 지정(6) 체육 교과목 지정(4)	사회 교과목(6) 과학 교과목(6) 체육·예술 교과목(6) 중 [택3]	사회 10 과학 12
			사회 교과목(4) 과학 교과목(4) 중 [택2]				
체육· 예술	체육(4) 예술(4)		체육 교과목 지정(2) 예술 교과목 지정(6)				체육10(매학 기 이수) 예술10
생활· 교양	생활·교양(4)		생활·교양 교과목 지정(4)		생활·교양 교과목(4) [택2]		생활·교양 16
이수 단위	30	30	30	30	30	30	180

김정빈(2017)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정 선택형이 아닌 개방적 과목선택형 체제를 지향한다고 단정 짓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이

를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1997) 이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고 기존의 ‘진로집중과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문제의식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때 ‘고교학점제’의 적절한 실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2절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

1.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7차 교육과정의 특징

1997년에 고시되어 2002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이 기존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다르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11-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수업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과(56단위)와 2-3학년의 선택 과목(136단위)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선택 과목은 다 시 교양의 성격이 짙은 일반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진학과 연관이 높은 심화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구성은 <표 5>와 같다(교육부, 1997: 7).

<표 5>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단위배당 편제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국 어 도 덕	국어(8) 도덕(2)	국어 생활(4) 시민 윤리(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 회	사회(10) 국사(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수 학 과 학 기술· 가정	수학(8) 과학(6) 기술· 가정(6)	실용 수학(4) 생활과 과학(4) 정보 사회와 컴퓨터(4)	수학 I (8), 수학 II(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 수학(4)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과학 I (4), 물리II(6), 화학II(6), 생물II(6), 지구과학II(6),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과	외국어	영어(8)		영어 I (8), 영어 II(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독일어 I (6), 프랑스어 I (6) 스페인어 I (6), 중국어 I (6) 일본어 I (6), 러시아어 I (6) 아랍어 I (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I(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수 단위	56	24 이상	112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관심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7차 교육과정은 계열을 설치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선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과 달리 몇 개의 과정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1997: 20).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과목에 배정된 136단위 가운데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도록 하였다.

7차 고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첫째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총 90과목 중 학생 중심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일반 선택 26과목, 심화 선택 53과목을 개설하였다. 둘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도입이다.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 및 학생선택으로 확대하였는데 특히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50%까지 부여하였다. 셋째, 2,3학년에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 개인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존중하여 학생별로 자유로운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고 중도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7차 교육과정의 문제

7차 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제한된 여건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 선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선택 교과목의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대학입시의 영향이 지배적이고,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의도가 학교 현장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 과목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택의 폭 역시 제한적이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 과목 중 택1’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간혹 ‘세 과목 중 택1’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원 수 부족, 대학 입시와의 괴리, 시설 부족 등을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표방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체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뒤를 이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특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별 수업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구조의 측면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정에 대해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편에서는 누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맡길 경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과목 이수보다는 즉흥적이고 파편적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들이 하나하나 과목을 선택하는 분절적 방식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이수 경로나 계열을 제시하고 충분한 안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주체가 학생이 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의 계열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2.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7차 교육과정과 달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등학교는 3년 간 전체가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표 6>과 같이 필수 이수단위만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표 6>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최초 고시)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과(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 제도를 도입하여 성격이 유사한 몇 개의 과목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함으로써, 학교에서 학기당 편성하는 과목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각의 과목보다는 교과군을 기준으로 개설할 과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밀접히 이어져 있는 또 다른 조치가 학기당 이수과목 수의 제한을 통한 교과 집중이수제의 유도이다. 학교에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를 8개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교과 집중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보다는 6차 교육과정에 가까운 접근을 따르고 있다.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각 교과군의 필수 이수단위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실제적 수업 진행이 힘들어진 것은 집중이수제, 교과군 20% 증감과 맞물리면서부터이다.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목의 비효율성이 점차 대두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학교 현장은 교사수급 문제, 반편성 문제, 학교 운영 문제, 학습 공간 부족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과 조건에 맞물려 기존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다양화를 표방하면서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이었으며, 교육과정 자율화 역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고시 이후 거의 매년 부분 수정되면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만 예를 들면 2011년에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부로 보통교과에 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한편, 선택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 교과군의 한국사가 필수로 지

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3년도에는 기존의 필수 이수 단위를 하향 조정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일반고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화의 간극을 축소하는 한편,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초 교과에 이수 단위가 총 교과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권장 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3년도 12월에 수정 고시된 일반 고등학교의 단위배당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7> 2013 수시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배당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과(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12)		
	소 계		86(77)		94(103)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과 주요 사항

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2015 교육과정 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이어받아 한편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국가융합기술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융합기술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사회가 융합기술이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급별 교과목 편제와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개정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목의 공통과목을 다시 도입하였는데, 특히 사회와 과학 교과의 경우 여러 하위 영역의 학습내용을 연계·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과학실험의 활성화를 통한 수업 개선을 위해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공통과목으로 도입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인간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들 핵심역량은 한편으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15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들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핵심역량은 2008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수행해 온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출처: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셋째, 2015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특히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는 항목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들 내용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자들의 숙의의 결과이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위에 제시된 중점들 중 ‘가’항은 주로 총론의 학교 급별 교과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항은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을, 그리고 ‘다’항과 ‘라’항은 각각 교수·학습과 평가의 개선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지침들을 유목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39개 범교과 학습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10개의 대주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발전 가능 교육 등이다.

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편성·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약 2년간에 걸친 개정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되었다(교육부, 2015). 고시된 교육과정 내용 중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공통사항

-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학년군 :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교과군 :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변경 및 공통 과목의 신설 :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교과목 집중이수 :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단위 배당 기준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목고의 단위 배당 기준은 <표 9>와 같다. 또한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의 구분은 <표 10>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단위 배당 기준을 기본으로 보통교과의 선택과목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표 9> 일반고(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 2외국어/한문/ 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표 10>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선택 과목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일본어 I, 프랑스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중국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공통사항)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
-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함.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함
-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름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함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

목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특징 요약

앞에 제시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유지하였다. 교과 구분과 관련하여 4개 교과 영역 구분을 유지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침 및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 등 기본 방향을 유지하였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취지에 따라 기초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과목을 신설하였다.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과목은 국어(8단위), 수학(8단위), 영어(8단위), 한국사(6단위), 통합사회(8단위), 통합과학(8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나,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고,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택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심화된 학습과 학생 진로를 고려한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군)별 필수이수단위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준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입 준비를 위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편중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9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기초영역’ 교과의 총 이

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6단위가 기초영역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편성될 수 있는 총 단위 수는 84단위가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이 지침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I 과 전문 교과 II로 구분하며, 전문 교과 I 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하고 전문 교과 II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폭넓은 기초소양 함양을 위하여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단위를 72단위로 조정하였으며,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4. 선택형 교육과정과 학점제 배경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공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신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과목 다양화’, ‘국어, 영어, 수학 비중 적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하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의미 있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과정별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침 내용

시기 내용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지침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

	<p>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선택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p> <p>◆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한다.</p>	<p>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p> <p>◆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출처: 교육부(1997:15, 2013:16~17, 2015:22~23), 교육인적자원부(2007:13, 20~21)

고교학점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시도되었던 선택형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선택형 교육과정의 최종적 형태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엄격한 계열 과정을 두지 않는 유연한 진로 탐색형(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과 시스템 불일치로 이를 적용 반영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2015 개정교육과정도 7차 교육과정의 유연한 진로 탐색형을 추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집중과정’ 방식도 없었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려면 교과목별 성취수준 방안, 졸업 요건 설정, 개방형 교육과정 수립 문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설정해 적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고교 학사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어 학교 단위의 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평가 개선, 시설확보 교원 수급 개선 방향 등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 공론화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교 교육의 변화 방향의 키워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 ‘학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는 고교학점제 실행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차원에서 다양하게 개설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 수급 및 시설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단위 학교 차원에서 모두 개설 운영하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선택과목 이수에 있어서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어떻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했다. 또한 이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4개(일반고 31개, 특성화고 23개)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수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학교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제2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고교학점제를 먼저 실시한 해외의 사례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의된 대상에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인 측정을 하는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Yin, 2018). 즉 해외의 사례를 연구한 문헌을 바탕으로 해외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보고서 분석과 교사 인터뷰를 통해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분석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요소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2017.11.27.)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운영계획안에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연구학교의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특별히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연구학교 추진계획(안)의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에 드러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한 논문 및 저서를 활용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에는 임광국(2017), 김혜영, 홍후조(2018), 조현형, 손민호(2018)의 학회지 논문과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9)

의 저서를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논문과 저서에서는 핀란드, 미국, 캐나다, 남호주(South Australi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해외사례의 경우 해외의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국내 논문 및 저서에서 언급된 2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해외사례를 모두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해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해외 사례분석 결과

국가	연구자	학교		교사		학생	
		학교 자율성 보장	지역 사회 연계	수업 및 평가의 고유권한 인정	절대평가	심화 및 보통교육	종합 (졸업) 시험
핀란드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9)	○	○	○	○	○	○
캐나다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9)	○	○	○	○	○	△
	임광국(2017)						
미국	김혜영, 홍후조(2018)	○	○	○	○	○	△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9)						
남호주	조현영, 손민호(2018)	△	○	△	○	○	○

(○ : 시행됨, △ : 시행되고 있으나 제약이 존재함)

가. 핀란드

핀란드의 공교육은 연령이나 성별, 주거지역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이러한 관점에서 핀란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다.

핀란드의 학제는 종합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교육기간 5년 및 기초 중등교육기간 4년과 고등학교 기간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9년간의 종합학교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다. 고등학교는 3년제 일반 고등학교와 2~3년제 직업고등학교가 있다. 이후 보편적으로 3년인 고등학교 과정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며 2.5~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핀란드의 경우 수업일수가 우리나라처럼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38주 동안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5~6개의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매 학기당 5~6개의 코스를 수강한다(김진숙, 2018). 하나의 코스는 38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동안 75개의 코스를 이수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1교시의 수업시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45~75분 정도로 정해져 있다. (간혹 90분도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75개의 코스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코스가 45~51개이다. 또한 한 과목에서 3개 이상의 코스에서 F를 받거나 2개 코스에서 연속으로 F를 받으면 F를 받은 코스 중에서 하나를 재이수해야 한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교 자율성 보장을 들 수 있다.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별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수업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름학교, 야간 성인학교처럼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학점 상호인정 체계를 갖추는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내용, 학생평가방법의 결정, 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발언권 확보 등 전문성을 존중받고, 학생들의 이수 미이수를 결정하는 7단계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즉 핀란드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고유의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상담교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학습기간을 설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학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복지팀이 집중지원을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등 학교에서 책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졸업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 자율성 보장, 정확히는 이수기준, 학생을 위한 책임 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시스템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핀란드와 같이 지역별로 교육과정을 달리하는 등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또한 평가 및 이수기준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

라에서 고교학점제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이수 혹은 재이수를 하는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논의에 핀란드의 집중지원 시스템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수로 이끌어 나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나. 캐나다

캐나다 교육은 지역사회, 교육행정인력, 기업, 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각자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며 기본 학력과 시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요구가 맞물려 캐나다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1~8학년을 초등학교 단계와 9~12학년의 고등학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9~10학년에서는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11~12학년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과목을 수강한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캐나다는 주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한 조건도 주마다 상이하다. 온타리오 주의 예를 들면 30학점 이수, 4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주정부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점의 기준은 1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0.5학점(55시간 이수), 1년을 수강하는 경우를 1학점(110시간 이수)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목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과목당 이수여부는 절대평가로 측정한다. 즉 학생 성적이 제시된 성취수준의 50% 이상을 달성하면 이수로 간주한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캐나다의 경우 교육의 지방자치 및 지역단위의 개별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각 주마다 자치정부를 지니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발, 학생 졸업 자격, 교과서 및 학습자료 등의 몇 가지 중요사항에만 관여한다. 이외의 학교 예산 및 시설, 교원 수급과 같은 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즉 교육에 있어서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 및 교육센터에서 수강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교사는 행정 및 상담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행정 업무의 경우 행정실에서 진행하고 상담은 상담 전문교사가 수행을 하는 등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평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을 성취하면 이수가 결정이 되는 절대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IB와 AP과정처럼 자신이 원하는 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부족한 학습을 만회할 수 있도록 보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교사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학교 자율성 보장 및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특정한 세목에 맞춘 예산 사용이나 예산 결재 과정의 복잡함 등이 그 단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의 사례처럼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및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및 평가에만 전력하고 다른 행정 및 상담업무가 없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시사점을 준다. 현행 1교사 1업무 체제대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경우는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 미국

미국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 보장이다.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연방 정부에서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주정부도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업표

준만을 제시한다(강현석, 2003).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고교학점제로 발전했다.

미국의 학제도 캐나다의 사례처럼 주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사례로 들어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4년의 형태로 학제를 구성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2개 학기로 1년을 운영하지만 일부학교는 여름학기를 포함하여 3~4개의 학기를 운영하기도 한다. 1학점의 기준은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며 모든 과목은 1학기당 5학점, 즉 일주일에 5시간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모든 과목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졸업을 위해서는 21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영어 3년, 수학 2년, 사회과학 3년, 과학 2년, 외국어 1년, 시각 및 공연예술 1년, 체육 2년과 같이 각 과목별로 필수이수기간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한다.

미국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특징 역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다. 영어와 수학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및 교육내용을 각 주의 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름학교 및 고등학교 간 연계, 나아가서는 주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사회와 고등학교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사들은 학교의 운영 및 행정에 대한 업무부담은 없으며 자신의 수업내용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실시한 절대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4.0 만점의 GPA로 산출이 되며 일부 AP과목과 IB과목은 5.0만점으로 성적에 반영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수학과목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머지 과목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며 우수학생들은 AP나 IB과정처럼 대학선수과목을 수강하거나 이원등록(dual enrollment)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전문대학,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중 지역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대학학부 수준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다. 양쪽의 학점을 모두 인정하고 이후 대학에 진학했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도로써 일종의 ‘대학이행프로그램(college transition program)’으로 볼 수 있다(Hoffman, 2012; 김혜영, 홍후조, 2018 재인용). 반면 학점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시와 지역교육구가 협력하여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이외에도 해당 과목 최고의 교사를 강사진으로 활용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APEX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도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계열의 과목에서의 이수 여부와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지역교육구가 그 요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졸업에 영향을 주는 졸업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SAT나 ACT와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미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제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이나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해서는 많이 취약하다. 따라서 미국에서 운영되는 APEX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연구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활용할 수 있다.

라. 남호주

기본적으로 호주의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2009년에 설립된 호주 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의 주도 아래 편성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현이 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서 이 편성의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 중등교육시기(post-secondary)라고 불리는 11~12학년에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학제는 남호주주(State of South Australia)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6년제의 초등과정과 6년의 중등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남호주의 경우 7년의 초등과정과 5년의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남호주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남호주의 경우 10주 정도의 기간을 묶어 1텀(term)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텀 이후에는 2주 정도의 방학을 한다. 2개의 텀이 한 학기가 되고 1년은 2개의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교사의 수업시간은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60~90분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남호주의 학점제는 SACE(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인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예술,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및 기술, 교차 학문, 영어, 건강 및 체육, 인문 사회 과학, 언어, 수학, 과학의 9개 교과군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점제는 10학년의 개인 학습계획(Personal Learning Plan:PLP)를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11학년의 Stage 1과 12학년의 Stage 2로 이루어져 있다.

SACE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및 선택 과목을 합하여 20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이수하면 10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20학점의 경우 한 과목을 1년 이수할 시에 부여된다. 필수 이수요건으로는 10학년의 PLP, 언어 영역 10학점과 수리 20학점(Stage 1 이나 Stage 2에서 선택 가능), Stage 2의 연구 프로젝트 10학점이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SACE의 이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통 필수 교과에서 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조현영, 손민호, 2018).

평가의 경우에는 SACE(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인증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SACE 평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사평가 70%와 외부시험 20% 및 매 해 10월에서 11월에 걸쳐 4주 동안 실시되는 표준화 평가 10%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 사실로 보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평가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성적 조정을 위해 한 학교에서 받은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조현영, 손민호, 2018)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하는 필수 이수과목 시간 수를 축소하는 대신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강현석, 2003). 이러한 정책실현의 방향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여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도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조현영, 손민호, 2018). 이후에 국가수준 교육과정보다 각 주의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학생의 진로 및 수준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교사진이 특성화되어 있고, 학교마다 중점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근학교와 연계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조현영, 손민호, 2018).

남호주의 학점제는 10학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시작을 위해 개인학습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게 된다. PLP(Personal Learning Plan)이라고 불리는 개인 학습계획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Stage 1에서 Stage 2까지 학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자신이 기르고 싶은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인증한 학교와 산업체, 대학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조현영, 손민호, 2018).

남호주 학점제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표준화된 이수기준이다. 남호주의 경우 SACE 인증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점이수를 관리한다. 또한 교사 평가 70%, 외부시험 20%, 표준화 평가 10%의 결과를 고루 반영하여 교사별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수기준을 확정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호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평가기준 및 이수기준 확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국내 연구논문 분석

위에서 제시한 해외 사례의 분석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하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요소, 교사들의 인식 및 선결사항 등이 연구되었다(홍후조, 2018; 이광우, 2018; 김천홍, 홍수진, 2018; 김대영, 우옥희, 2018). 국내 연구에서도 해외 사례들을 많이 인용하였고 현재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해외사례에서 관찰된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운영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논문 분석에 있어서도 해외 사례분석과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대신 사례에서 관찰하기보다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개선점을 제한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고교학점제 관련 국내연구 분석 결과

연구자	학교		교사		학생	
	학교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 연계	수업 및 평가의 고유권한 인정	절대 평가	심화 및 보충교육	종합(졸 업)시험
홍후조(2018)	○	○		○	○	
이광우(2018)	○	○		○		○
김천홍, 홍수진(2018)			○	○	○	○
김대영, 우옥희(2018)	○		○	○	○	

(○표한 부분이 분석한 논문에서 제안점으로 제시한 것임)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내연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후조(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고교학점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근원인 단위제와 학점제의 이해 및 고교학점제의 개념 및 도입 목적,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점과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점제와 관련된 논의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서는 고교에서 선택과목의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교육부, 2017; 이광우, 2018), 교원들과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학점제를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한 교사의 평가권을 확보하며 절대평가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의 질 관리, 즉 일정한 학습량을 채우면서 일정 수준의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했을 때 해당 과목의 학점을 부여하는 것(박하식, 2017; 허경철, 2017)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과목에 대한 개괄적이고 분명한 안내, 교과 내 과목 간 이수 순서에 관한 안내, 과목이수규정에서 과목별 성취기준을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통신강좌, 타교수강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우회로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우(2018)는 고등학교 교사 1608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교학점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결조건들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구성 혹은 시간표 구성이 유연하게 작동되는 시스템, 선택과목 수강(이수) 방식의 다원화에 따라 학교 밖 학습경험과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과목 선택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학교 차원의 고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의 향상, 학생 중심평가, 즉 학습자의 적성·진로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절대평가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업과 평가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에 따른 과정적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홍, 홍수진(2018)의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교과 다양화 및 특성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및 지역,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의 재구축에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고교학점제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별 평가의 질 관리, 교사의 학생평가 결과 산출 방식에서 성취평가제와 같은 준거참조평가 방식을 어느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경우 유급, 조기졸업, 과락, 재이수와 같은 제도에서의 문제 또한 직면해 있으며 동일한 연구에서 모든 교과 또는 일부 교과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그 영향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교사의 수업과중과 업무에 대한 문제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천홍, 홍수진, 2018).

이에 대한 제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선발적 평가권보다는 교육적 평가권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총괄적 학생평가의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급, 조기졸업, 과락 및 재이수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 국가수준의 대규모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김천홍, 홍수진, 2018).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교사의 평가권을 인정하는 교사별 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적으로 실시하되 절대평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중심평가와 수능을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택으로 내신을 절대평가로 실시한 이후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김천홍, 홍수진, 2018).

마지막으로 김대영, 우옥희(2018)는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가문서를 분석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현행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총론의 체제를 학점에 대한 규정, 과목 이수, 졸업과 진급 등에 대한 기준 등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점제가 아닌 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제사례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학점을 설정할지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교과목의 이수기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졸업과 진급에 대한 요건 등의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국가교육과정에 기술하여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인 보완 이외에도 교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의 지원방안이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과목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진로상담 교사를 더욱 많이 배치하여 개인별 시간표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절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학교의 운영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된 점을 근거로 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사례 학교의 보고서를 <표 14>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14>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www.hscredit.kr)에 탑재된 2018년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105개의 연구학교(일반고 31개교, 특성화고 23개교) 및 선도학교(일반고 51개교)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의 연구학교 보고서를 분석했다.

<표 14>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틀

상위요소	하위요소	해외사례	관련연구
	수강신청 절차	핀란드, 캐나다, 미국, 남호주	이광우(2018), 홍후조(2018), 김대영, 우옥희(2018)
과목 선택의 자율성	수강신청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이광우(2018)
	개인별 시간표의 제공여부	핀란드, 캐나다, 미국, 남호주	이광우(2018), 김대영, 우옥희(2018)
	다양한 교육과정	미국, 남호주	이광우(2018), 홍후조(2018),

	의 운영유무		김대영, 우옥희(2018)
평가 및 이수기준 확정	평가기준 확정	핀란드, 캐나다, 미국, 남호주	이광우(2018), 홍후조(2018), 김천홍, 홍수진(2018), 김대영, 우옥희(2018)
	이수기준의 제시	핀란드, 캐나다, 미국, 남호주	김천홍, 홍수진(2018), 김대영, 우옥희(2018)
대입과의 연계성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점학교, 중점학급)	남호주	이광우(2018), 김천홍, 홍수진(2018), 김대영, 우옥희(2018)
	수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수능 대비 프로그램 운영)	핀란드, 캐나다, 미국, 남호주	이광우(2018), 김천홍, 홍수진(2018)

이와 별개로 연구학교 운영교 책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위의 <표 14>에서 제시된 하위요소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 운영상에 직면할 수 있는 쟁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부록> 참고). 구체적으로는 수강신청 인원 부족 시 폐강 여부, 과목개설 최소인원, 과목개설 최대인원, 수강신청 후 조정 여부 및 조정의 이유, 진로관련 선택과목의 교원수급문제, 이수와 미이수의 기준 존재 여부로 구성되었다. 질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분석 결과

상위 요소	하위 요소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과목선 택 의 자율성	수강신청 절차	○	○	○	○	○	○
	수립여부						
	수강신청 프로그램	○	○	○	○	○	○
	존재유무						
	개인별 시간표	○	○	○	○	○	○
	제공여부						

인원						
부족시	○	○	○	○	○	○
폐강여부						
과목개설 최소인원	20명	15명	20명	기본14명 최소5명	선택과목5 명이상 필수과목10 명이상	교과협의회 를거쳐 결 정
과목개설 최대인원	30명	30명	37명	38명	30명	30명
수강신청 조정유무	○	○	○ (공동교육과정 5과목)	○	○	○
조정이유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거나 많 음, 학급편 성의 편의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음, 학급 편성의 편 이	학급편성의 편의, 소수교육과정 6과 목으로 2명의 수 업이 진행되는 것 도 있음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거나 많 음, 학급편 성의 편의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음, 학급 편성의 편 의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거나 많 음, 학급편 성의 편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유무	○ 주문형강좌 , 클러스터	○ 주문형강좌 , 클러스터	○ 주문형 강좌	○ 온라인 교육과정	○ 거점형, 밴드형, 온라인	○ 주문형 강좌
진로 교과목의 교원수급	지역사회 연계	학교자체 해결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 계	학교자체해 결, 지역사회 연계(정 원의활용)	학교자체해 결, 지역사회 연계(소 수강좌 시 간강사 채 용)
교과목 포기혹은 추가 가능여부	×	×	×	×	×	×
평가 및 이수기 준 확 정	평가방법 제시 이수기준 제시 이 수 와 미이수의 기준존재	×	×	×	×	논의중
대입 연계성	진학 교육과정 운영 (중 점학급	○ 과학, 공학 융합 중점학교, 체육중점학급	○ 생활교양군 논술교과편성	×	○ 전공적합성 에따른 트랙제시	○ 전문교과과 목편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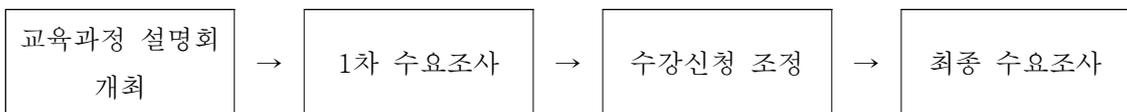
수능과연 제한교육 과정운영	×	×	×	×	○ 전공적합성 에따른 트랙제시	○ 수능응시에 따른 교과목이수 로드맵제공
----------------------	---	---	---	---	---------------------------	------------------------------------

1. 학생들의 과목선택 및 교원수급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스스로 수강할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의 여부가 고교학점제의 성패로 이어질 것이다. 과목선택과 맞물려 수강신청 후 폐강의 여부, 수강신청 취소/최대인원, 수강신청 이후의 학생들 간의 조정기간이 존재여부 및 진로과목 수강신청 시 교사 수급과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수강신청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학교에서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할 과목을 담당 교사들이 설명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과목 설명회 혹은 과목설명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상급학년에 진학할 시에 필요한 진로관련과목 및 필수, 선택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 상호간의 수강신청 조정의 시간을 거친다. 이 조정기간 이후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하여 수강 신청을 확정했다.

[그림 5]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절차



특별히 수강신청 조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한 6개 학교 모두 학급 편성의 편의를 위해 수강신청 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즉 수강신청인

원이 너무 적어서, 혹은 너무 많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고등학교의 경우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 교육과정 상에서 6과목이 있으며 단 2명만의 학생이 한 강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연구학교의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진로 컨설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 수강신청 과정 이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고교에서는 패스티벌 형식의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을 도왔다. 이 교육과정 박람회에서는 교육과정 안내서를 배부하고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2,3학년의 교과목을 각 교과목의 교과부장교사가 안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희망계열(진로)에 따른 모의 과목 수강신청 및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밴드형, 거점형, 나아가서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밴드형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몇몇의 학교를 묶어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반면 거점형은 거점 중점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주변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이다(교육부, 2017). 또한 학생들의 수요는 있었지만 교원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과목들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주문형 강좌나 인근지역 학교 간에 교육과정 및 학생을 상호공유하여 활용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는 소인수 선택과목의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또한 교사의 수급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도서 및 벽지학교에서 학생 선택형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수강신청 절차와 함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원의 수급문제이다. 교사의 수급과 관련하여 수업이 개설되기 위한 최소인원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인원, 그리고 수강자가 적은 경우 폐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

의 강의를 제공할 때 교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 수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수강신청 최소인원은 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상이했으나 최대인원은 C고의 경우 37명 및 D고의 38명을 제외하고 모두 3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최소인원에 모자라는 경우 모든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고 폐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교사를 수급하는 것에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경직된 교원인사제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유연하게 교육을 위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평가 및 이수 기준

두 번째로 연구학교로 평가방법과 이수기준 설정, 미이수 학생 관련 제도 마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안상진(2017)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책임교육을 실천하에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고교 내신에 있어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나 평가와 관련해 6개 학교의 보고서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현재 국가에서 성취평가제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단위학교 내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평가제도는 성취평가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받아 보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절대 성취도 이외에 학생들의 과목별 석차를 반영한 석차등급도 산출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성취평가제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학점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이수와 미이수를 결정짓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의 학교(F고)에서만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고교학

점제가 실시되고 있는 연구학교에서 조차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내신 상대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학입시와의 연계성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며 가장 마지막 살펴본 요소는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이다. 분석을 실시한 학교 중 F고등학교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교과 담당교사들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수학을 예로 들면 자신의 진로, 수능 수학과목 응시 여부 및 수능 선택과목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및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대입기준) 이후 교과 이수 기준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표기하는 등 고교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의 F고등학교의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과목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선택이 대학 입시와 연결되는 사례는 연구학교 보고서에서 다른 형태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가 중점학급 설치 운영으로 볼 수 있다. B고등학교에서는 과학·공학 융합 중점 학급을 설치하여 과학 및 기술 전문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중점학급도 함께 편성하여 체육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해서 체육 전문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고등학교의 사례에서도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성격, 신체, 가정 배경 등에 따라 자신의 미래 진로에 맞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학 진학에 있어 고등학교에서 미리 전공적합성에 목적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대상 학교에서 모두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타 논의사항

위에서 제시한 분석 외에 기타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는 행정상의 어려움이다.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개인별 시간표의 확정, 학급편성, 시험시간표 편성 및 교과서 주문과 같은 업무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즉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의 체계변화를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의 행정시스템은 아직 준비중이고, 이를 체계화한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따라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실제 운영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학교는 제도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육부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화하여 학생 중심이 되는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김란주, 서경혜, 2018). 즉 캐나다나 핀란드의 사례처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활동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차원에서도 학교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을 해소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는 평가의 방법을 선정하고 미이수 기준설정 및 미이수시 학생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성취평가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표방한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연결된 고등학교의 교육은 성취평가제와 더불어 기존의 제도인 9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상대평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평가 취지와도 상충된다. 따라서 교사중심의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와 가장 부합하는 평가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가의 질관리를 위해 남호주의 SACE 시스템과 같은 학점 인증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광우(2018)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내신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거나(44.7%) 혹은 공통과목만 절대평가(21.8%)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여 70%정도가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공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다른 부분은 미이수 기준 설정 및 미이수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고교학점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점 이수 및 미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과목을 17차시 이수하는 것을 1단위로 보고 있다. 이를 학점제로 그대로 변환할지 아니면 다른 표준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절대평가를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를 미이수로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3년 동안 출석일수만 채우고 졸업을 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도입과는 그 취지 및 방향이 어긋난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성취

평가제의 경우 E(59점)를 받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미이수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여 미이수를 결정할지는 더욱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미이수의 결정은 유급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광우(2018)의 연구를 보면 고등학교 교사의 57.1%가 유급제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재이수제도 역시 67.2%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이수제의 경우 학교 단위 오프라인 보충과정 이수(31.3%)와 시도교육청 단위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24.3%), 거점 학교 단위의 오프라인 과정 이수(17.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이수와 미이수의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에 해외의 사례처럼 미이수가 발생하는 경우 재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학교의 교사들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 및 일반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Masko(2013)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더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며 더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며 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 고등학교에서만 혹은 몇 개의 고등학교만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핀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처럼 학점이수의 경계를 더욱 넓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조금 더 풍족한 학점제 운영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꿈의 대학’과 마을공동체 정책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꿈의 대학은 경기도 교육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

별히 개설한 강좌를 희망선택에 의해 수강하는 프로그램(경기도교육연구원, 2017)을 말하며, 마을교육공동체는 공교육이 마을과 연계를 맺어가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병곤, 2016)을 의미한다. 즉 학교가 문턱을 낮추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으며 공공기관 이외에도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는 열정과 전문성을 지닌 많은 청년활동가들이 있다. 이 중에는 목공, 수공예, 원예, 제과 및 제빵, 휴건축, 도예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며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부모들도 있다. 만약 이들과 함께한다면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일부를 마을, 즉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추창훈, 2017).

즉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의 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의 학점 이수 경계를 넓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좌의 인력풀을 넓혀 학생들을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위기 청소년들의 학점 이수 및 졸업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논의해 볼 점은 교사의 업무 경감 및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율성 보장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수업 이외의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이 지장받고 있으며, 시간표 운영 및 출장 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기존 행정 체계에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정전담팀을 운영하고, 학점제 운영에 맞게 행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 내용의 결정과 학생 평가와 관련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이루어낼 수 있게 하며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고취시켜 주는 제도로의 고교학점제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교과를 선택하여 수강하게 함으로써 성공경험을 길러주면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선택에 대한 신중함도 길러줄 수 있다. 또 어릴때부터 도전과 성취를 맛보며 자라는 세대들이 많아질수록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대다수 직업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이라는 벽같은 제도 앞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때문에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입시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사항이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결국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교육과정상의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학생의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통과목을 강화하고 각 교과와 핵심 개념과 이론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다(이현, 2017).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위상을 정립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시기를 지나면서 학습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김성천, 민일홍, 정미라, 2019).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가시화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해외 사례와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조건들은 크게 과목선택의 자유성, 평가 및 이수기준의 확정, 대입과의 연계성으로 나누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목선택의 자유성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의 절차와 프로그램의 확보, 개인별 시간표의 제공,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으로 볼 수 있었으며 평가 및 이수기준 확정에서는 평가 방법과 이수기준의 제시가 꼭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입과의 연계성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중점학교, 중점학급)과 수능과 연계한 수능대비(외국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종합시험)프로그램의 운영을 그 요소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학교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인 의미의 선택권 보장의 실패, 기존의 상대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교원수급의 어려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실패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중점학급 등을 편성하는 등 진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았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이수 영역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서 제시한 문제점도 나타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거나 대학입시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림, 2017; 홍후조, 2018), 이수기준확립 및 미이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광우, 2018), 다양한 교과 중점학교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마련(김은선, 김병찬, 2018; 조기범, 2018; 김진희, 김희경, 박형민, 2018), 교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보장과 같은 개선점(임광국, 2017)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가장 먼저 고교학점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례분석과 개선점을 논의했지만, 특정한 분야를 깊이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분야를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학교의 실제 사례를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심도 깊게 탐구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경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탑재된 연구학교 보고서들의 사례를 분석했지만 한 학교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거나 질적으로 탐구하기에는 깊이가 부족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현석(2018), 고교학점제 이해와 안착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8 제3호
- 교육인적자원부(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정 자료 142.
- 교육부(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판.
- 구자역, 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제 8권 제5호(통권 제 109호). 한국교육개발원.
- 권오현, 진동섭, 유지연, 안성환, 박은지(2016),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 김대영, 우옥희(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김란주, 서경혜(2018),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과정연구, 36(1)
- 김성천, 민일홍, 정미라(2018),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드림.
- 김은선, 김병찬(2018),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G교육청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6(4)
- 김정빈, 김수영, 함영기(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진숙(2018),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해외 사례(핀란드, 덴마크). 20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하계워크숍
- 김진희, 김희경, 박형민(2018), 고등학교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분석과 쟁점. 국제이해교육연구, 13(1)
- 김천홍, 홍수진(2018), 고교학점의 학생평정 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 김혜형, 홍후조(2018), 미국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6(1)
- 류태호(2017),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하식(2014), 국내 고교의 국제공인 교육과정(IBDP)의 도입 및 실행에 관한 연구: 경기외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손찬희(2017),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국회 대토론회 겸 제106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안상진(2017),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평가 혁신. 교육비평, 40
-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과제.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통권 298호)
-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실행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18(12)
- 이림(2017), 진학계 고등학교의 진로에 따른 교과 분화 및 구성 과정을 위한 기준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곤(2016),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공유회 자료집. 한국교육연수원, 3-9
- 임광국(2017), 고교학점제 운영의 해외사례. 교육비평 40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2018), 고등학교 혁신의 관점에서 본 고교학점제의 가능성 탐색. 2018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 조기범(2018),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인 체육 교육과정 클러스터 참여 고교생들의 경험 탐색. 교육연구, 73
- 조현영, 손민호(2018), 호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6(1)
- 진영호(2017),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 교육정책토론회집. p148-166.
- 추창훈(2017), 로컬에듀. 서울: 에듀니티
- 충청남도교육청(2016), 2017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및 지침 설명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연구보고 CRC 2013-1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2018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자료집
- 한혜정(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2016 KICE 이슈페이퍼.
- 허경철(2017), ‘고교학점제’도입을 생각하며,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칼럼(2017.4.19.)
- 홍원표, 김기탁, 김용진, 박지만, 진동섭, 소경희, 황규호(2015),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 홍후조(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부록>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

1. 수강신청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폐강을 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3. 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4. 학생들의 수강신청 이후에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 ① 현재 학교의 교원현황과 맞지 않아서
② 수강신청인원이 너무 적어서
③ 수강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④ 학급 편성과 관련된 편의로 인해서
⑤ 기타 ()

6.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교원수급은 어떠한 형태로 합니까?

- ① 학교 자체내에서 해결
② 주변의 인근 학교와 연계
③ 지역사회와 연계(외부강사 활용)
④ 기타()

7. 이수와 미이수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만약에 미이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2. 7-1에 ‘예’라고 답한 경우 미이수 학생에게 취해지는 별도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예: 방과후 학교, 동영상 제공 등)

8.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응답)

감사합니다.